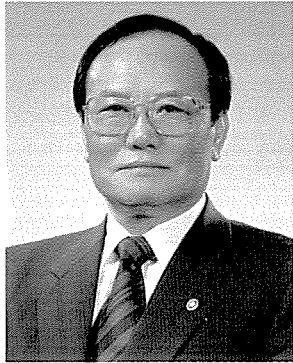


# 과학기술의 혁신은



金 始 中

〈과학기술처 장관〉

## 개혁의 핵심은 正常化

은 국민의 커다란 기대와 희망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전국토가 「신한국」 창조의 소리와 열기로 가득차 있는 가운데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우리사회 구석 구석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갖가지 비리와 부정이 속속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이토록 도덕력을 상실했는가 하는 지탄과 자성의 소리 또한 높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개혁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정상화」의 길로 되돌아가자는 지극히 당연한 변화일 뿐이다. 그 평범속에서 우리는 정상화로의 조속한 복귀야말로 「신한국」창조의 첫 걸음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무엇이 정상화의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과학기술행정인으로서 정상화로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말로만 외치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진정한 자기혁신을 할 때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은 자기혁신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핵심은 정상화로의 복귀인 것이다.

## 도덕사회의 바탕위에서

흔히 탈냉전이후의 국제관계를 경제전쟁, 기술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전쟁에는 항상 한나라의 생존이 걸려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이 경제력과 기술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모든 국가가 생존의 관건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전쟁처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는 「기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경제」라는 이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전쟁의 승패는 기술의 우열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은 한 나라에 있어서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실체적인 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실체적인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허약한 지반위에서는 어떠한 건물도 오래 지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토대는 바로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의식이 성숙된 사회, 도덕력이 고양된 정상적인 사회를 말한다. 그러기에 새정부의 개혁은 과학기술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과학적 합리성과 능률성, 창조성이야말로 개혁의 본질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에게는 국민의식개혁을 선도하고 도덕적 사회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 과학기술혁신의 걸림돌

우리 과학기술인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나가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 혁신의 첫번째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 인력 등의 자원부족도 중요한 걸림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제한된 자원인 만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여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만 먹으면 개

# 意識개혁으로부터

선할 수 있는 걸림들을 찾아내고 이를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더욱 값지지는 않을까 생각된다. 크게 과학기술인 및 국민의 의식면과 산·학·연의 연구개발체제 면에서 걸림들을 몇 가지 적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과학기술인은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어 창조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연구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연구형태에 젖어 있으며, 부단한 자기혁신의 노력이 미흡하여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국민은 아직도 전통적인 기술천시·인문중시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연구개발체제면에서 볼 때 정부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계」는 자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 조직운영으로 연구활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학」은 아직도 전통적인 상아탑의식에 안주하여 현실문제 해결 지향적인 인재양성과 연구활동이 미흡하고, 「산업계」는 내일을 준비하는 기술개발노력을 소홀히 해 왔으며 기업간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협동연구와 기술확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절실한 意識개혁운동

이와 같은 과학기술혁신의 걸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학기술인의 의식부터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 과학기술관련단체가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인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개혁과 변화에 부응하여 도덕성과 사명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혁신 분위기를 확산·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계」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교육·연구문화를 창출토록 하고, 「연구계」는 경쟁과 협동을 통하여 땀흘린 만큼 거두게 하는 연구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며, 「산업계」는 기술과 생산성을 앞세운 경영전략을 추구하여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식개혁차원의 과학화운동의 전개이다. 국민과 학화운동을 새정부의 국민의식개혁차원으로 발전시켜 국민

생활의 합리성·능률성·창의성을 제고하고, 특히 청소년의 학교밖 과학활동을 권장하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과학화운동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개발체제의 개혁이다.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는 산업기술, 공공기술, 기초·종합연구 등의 주요기능별로 특성화·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방식과 운영체제가 개편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행정위주의 관료적 경영체제를 연구중심체제로 정비하여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차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을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인 연구중심 권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있어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엄격한 평가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우수한 연구집단을 중점 육성하며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기술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간 특히 교차사용과 연구조합 결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신한국」창조의 주역들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결연한 마음으로 기술한국 창조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개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화합과 단결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나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의 몫」보다는 「우리의 몫」을, 「우리의 몫」보다는 「나라의 몫」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의 흐름을 폭넓게 조망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는 개척가로서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더 큰 결실을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찾아나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야말로 「신한국」창조의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